



여는기도(또는 사도신경)/ 찬송가 412장/

성도 -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빌립보서 1:1-7

“1.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I.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처형당하여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한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는 이러한 ‘기쁨’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나눔 01. (도입질문) 요즈음 내 삶에서 기쁨을 가장 쉽게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상황과 기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던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II.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A. 첫째,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함께함 속에서 ‘깊은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타지역 사람일지언정 큰 동질감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로 묶어 준 것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무런 자격 없이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함께함’ 앞에서 큰 동역자 의식을 느끼고, 이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연보’는 단순히 물질적 후원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의식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 나눔 02. (나눔질문)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복음에 동참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는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그러한 복음에 동참하여 기도와 섬김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B. 둘째, 성도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모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

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들과 집사들 앞에, ‘모든 성도’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거룩한 용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 나눔 03. (나눔질문) 스스로에 대해서 ‘성도’라고 부르거나, 불려질 때,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성도’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거룩한 용도, 특별한 쓰임을 위해 불리움을 받았다면,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 ‘쓰임, 용도’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정리되고,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나누어 봅시다.

C.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셋째로, ‘모든 성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수도없이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 전도,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자는 윤리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 버린 사람입니다. 겉으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는 괴로워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 예수가 채워지지 않고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 나눔 04. (나눔질문)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의 중심의 기준이 나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의 나의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III. 결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부르심에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 나눔 05. (실천질문) 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무엇이고, 다음 모임까지, ‘성도-‘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의 삶’ 살아가기 위한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실천사항을 생각해봅시다.

구역원 기도제목 나눔

마침기도(또는 주기도문)
